

15일부터 코엑스에서 국토교통 기술대전

자율주행·굴절형 S-BRT 미리 만나는 국토교통 미래

국토교통부는 미래 선도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을 5월 15일부터 17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 기술대전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서 발표한 12대 S.T.A.R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는 'Innovative Challenge, 도전의 시작·혁신의 출발'을 주제로, 220개 참여 기관에서 8대 테마관을 구성해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8대 테마관은 연구개발(R&D) 플래스카, 스마트SOC관, 국민생활안전관, 모빌리티관, 미래항공관, 탄소중립관, 산업육성관, 기술인증관 등이다.

관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빌딩,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어나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가상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사족보행 로봇과 철도 수화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도 미리 만날 수 있다.

미래항공관에서는 UAM 가상통합 운용 시뮬레이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를 선보인다. 일명 "드론택시"라 불리는 UAM의 가상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드론택시는 하늘길을 오가는 운송 수단인 만큼 정교하고 안전한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다. 관람객들은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 안전 시나리오 개발

및 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육성관에서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UPER-BRT(S-BRT)양문형 굴절버스도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모빌리티관에서는 3월 성공적인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GTX-A 노선 공사에도 적용된 TBM 터널 보강용 대차 장비를 전시한다.

그 외에도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음압병동 및 선별진료소 설치가 가능한 다목적 모듈러 건축물을 비롯하여, 태양광 방음벽, 3차원 여객 휴대수화물 보안 검색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 생활 혁신형 국토교통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기술대전 둘째 날에는 "Global Build Up 2024"를 주제로 국제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R&D)과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비롯하여 주제별 혁신 기술 성과발표회 등 연구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한편, 기술대전 첫 날에는 사전참가를 신청한 초·중·고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R&D 캠프' 사전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회 관람은 물론 기술대전 미션빙고, 4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대전의 주요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 LITT 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기자



전남도 관계자가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 '전라선 30분 이상 단축 고속철도' 강력 촉구

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타 대상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 원 대로 축소돼, 그대로 추진된다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밖에 단축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동안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

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현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막다른 절박함에 최근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다수의 의견을 모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고속철도로 추진해줄 것'을 끈질기게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이날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를 결정했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라선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최단 거리로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서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신 남해안 시대 마중물이 되도록 2시간대 생활권을 이루는 고속철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대규기자

6월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나들목 134.1km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6월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km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용객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 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창호기자

GLOBAL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5.29.수 ~ 6.2.일 여수세계박람회장